

EXPERT
KNOW-HOW

새로운 출발! YTN 상암동 신사옥NEWSQUARE!

+ 송병준 YTN IT기술팀(사진 제공 : 홍보·시청자팀, 신상옥 TF팀)



YTN

YTN은 올해 4월 7일 AM 05:00 서울 상암동 신사옥 'YTN NEWSQUARE'에서 첫 방송을 송출했다.

2004년 남대문사옥으로 이사한 지 10년 만의 일이며, 1993년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건물에서 창사를 한 시점부터 따지면 대략 20여 년 만에 방송전문 시설의 건물로 이전을 하였다.

YTN NEWSQUARE는

4,978.60㎡(1,506.02평)의 대지 위에 건축면적 2,982.70㎡(902.26평)으로 지어진 지상 18층, 지하 6층 규모의 최첨단 신축 건물이다. 건물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서쪽의 곡면에는 지상 2층부터 18층까지 대형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외부 면에 영상 표현물들을 재생, 표출하는 최신 미디어 장치로 이를 통해 다양한 영상물들을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다.



미디어파사드 모습

신사옥 건설과 동시에 YTN의 새로운 CI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CI는 두 개의 원과 YTN이라는 여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새 CI의 의미는 '만남과 소통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다. 또 사옥의 모든 공간에 CI의 모티프가 예술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했으며, 이 노력의 결실로 YTN 신사옥은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회사 곳곳에 녹아든 YTN CI

사옥의 1~5층까지는 스튜디오, 부조 등 방송 시설과 관련 부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6~18층까지는 사무 전용층이다. 현재는 YTN 본사와 YTN 자회사(YTN PLUS, YTN DMB, YTN FM RADIO) 3개사, YTN 자체 운영채널(YTN International, YTN Science, YTN Weather) 등이 입주해 있다. 주요 방송 시설로는 TV 스튜디오 7개, 라디오 스튜디오 4개, 통합주조정실 1개, TV부조정실 5개, 라디오 부조정실 4개, NCC실, NPS실 등이 있다. 1층에는 150석 규모의 대형 미디어홀이 있는데 토론회, 강연, 영화상영 등이 가능하며, 분장실과 대기실도 별도로 갖춰져 있어서 방송은 물론 음악회나 연극 등 예술공연도 할 수 있다.



미디어홀 전경 및 미디어홀에서 제작한 '소나기' 프로그램

외부 방문객들을 고려한 투어코스 및 공간도 마련하였는데, YTN 프로그램 소개와 YTN의 연혁, 철학 등을 소개한 복도를 1층에 만들었으며 방문객용 체험 스튜디오가 있어 간단한 뉴스 방송 체험이 가능하다.



YTN 소개를 위해 만든 복도



로비에 위치한 포토존 및 체험 스튜디오

또한 5층에는 복도에 70m 이상의 내부 투어코스가 설치되어 생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내부를 시창을 통해 직접 지켜볼 수 있으며 복도 벽면에 방송이 제작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뉴스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뉴스제작을 그림으로 표현한 투어코스 및 시창을 통해 본 스튜디오 모습

동시에 직원들을 고려한 공간도 마련되었는데 각층에 마련된 스마트 회의실과 2~4층까지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들 간의 소통과 휴식의 장을 만들고 있다.



직원 휴게실 및 스마트 회의실

YTN 영상 제작이 한 곳에

3층에는 보도국과 영상 취재, 편집 및 영상 아카이브팀이 자리 잡고 있어 기사작성부터 영상 취재, 편집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영상편집 부서는 NLE를 이용한 영상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원활한 편집과 추후 4K 편집을 위해 5층의 NPS실 Backbone과 160Gbps로 연결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NLE를 수용하기 위해서 144port를 수용할 수 있는 준 백본급 스위치를



영상편집부 전경



도입하였다.

영상 아카이브팀은 CMS 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영상을 등록 및 관리하는 부서로, 늘어나는 외부 영상 소스를 수신받기 위해 YTN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E-VCR 장비로 16개 채널의 HD 소스를 동시에 ingest 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수신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CMS 시스템으로 등록되게 연동되어있다.

영상 아카이브 팀

6개의 다양한 방송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는 총 6개의 스튜디오가 있으며 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3개, 제작 스튜디오 1개, VR 전용 1개, 오픈 스튜디오 2개로 구성되어있다.

1 스튜디오 (Multi DID Studio)

오픈형 복층 형태의 스튜디오(268m)로 좌측으로 편집부 사무공간과 우측으로 부조정실의 시청이 노출되어 있고, 관람객의 동선이 전면과 우측면으로 연결된 구조가 특징이다. 토론형 메인 테이블의 형태와 55" DID 디스플레이로 후면부 와이드한 백스크린을 구성했다.



2 스튜디오 (DLP Studio)

YTN의 메인 스튜디오(321m²)로써, 고화질 와이드 영상을 제공하는 70" DLP 디스플레이로 백스크린을 구성했으며, 부조정실 시청을 통해 부조정실의 모습을 활용할 수 있다. 9타일로 구성된 47" DI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중계화면에 활용 중이다. 다양한 환경 연출을 위한 6인 착석 가능한 메인 테이블과 3인 진행이 가능한 앵커 테이블, 6인 착석 가능한 반원형 소파 테이블로 구성되어있다.



3, 5 스튜디오

기존 뉴스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컨셉으로 만들어 YTN Weather와 YTN Science, YTN DMB 스튜디오로 생방송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4 스튜디오 (Virtual Studio)

VR 제작 전용 스튜디오로 3면을 블루스크린으로 설치하여, VR 크레인을 포함한 VR 카메라 3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과 선거방송 때 활용했으며, 앞으로 뉴스 포맷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1, 2 오픈 스튜디오

1 오픈 스튜디오는 3층 보도국 사무실을 배경으로 뉴스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튜디오이며, 1층 로비에 위치한 2 오픈 스튜디오는 전시 공간 형태로 방문객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무인 로봇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3층 오픈스튜디오



1층 오픈스튜디오

YTN의 심장, NPS실

NPS실은 서울역 사옥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공간에 구성을 하였고, 추후 DTL(Digital Tape Library) 증설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간을 배치했다.



NPS 관제실 및 기계실

중앙 스토리지는 서울역 사옥의 2배에 달하는 200TB를 사용 중이며, 모든 스토리지 Node는 백본과 10Gbps로 연결되어 충분한 대역 폭을 확보하였다. 네트워크는 앞서 말했듯이 추후 4K를 이용한 편집이 가능한 인프라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Backbone 장비는 Virtual Chassis라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두 대의 Backbone 스위치를 하나의 장비처럼 사용하여 failover 시간을 최소화 하고 트래픽을 분산시켰다.

DTL(Digital Tape Library)은 기존에 사용 중인 장비와 새로 도입된 장비를 혼용해서 사용 중이며, 각각 제작용과 뉴스용 DTL로 용도를 분리하여 제작 업무와 뉴스 업무 상호 간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게 했다. DTL TAPE는 LTO-6(2.5TB/TAPE)를 도입하여 공간의 효율성 높이고 TAPE 대비 저장량을 늘렸다. 또한 기존 사옥에는 없었던 NMS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제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시스템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으로 상암동 YTN 신사옥 소개를 마치며, 상암동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YTN이 펼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YTN 파이팅~!! 